

좋은 번역을 위한 조정작업

이중환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하나 읽어보자.

“그것은 정식, 양식들에 따라 진행되는 데, 때로는 이론적 정식들이 더 효율적이고 큰 역할을 하여 그것들의 마술적 본성, 그것들의 권위적 독단주의, 나아가 그것들이 싸울 것을 주장하는 입장을 공유하는 숨겨진 권력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유효한 푸닥거리의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만 죽음을 확인하는 체할 뿐이다. 마치 검시관이 해오던 것처럼 그것은 죽음을 선언하지만 여기에서는 죽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전술을 잘 알고 있다.(여기서 ‘그것’은 푸닥거리 conjurement이다.)”

이 글은 내가 최근 열심히 읽어보려 했던 테리다의 신간번역서 중의 한 구절이다. 나는 이 글의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테리다의 개념 또는 은유나 비유들의 우리말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느냐에는 다소간 의문을 갖는다.

한 문장을 더 보자.

“새롭게 등장한 의사분과학문 구조들이 기존의 분과학문들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싸움에서 현재 재정적 뒷받침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집단들이 자원분배에서 자신들이 제의한 자원이전에 대한 추상적인 지적 정당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역시 최근 역간된 윌러스틴의 보고서 중 이해가능한 구절이다. 그럼에도 역시 번

역이 매끄러운 문장은 아니다.

최근 한 교수가 그 역시 누구의 어떤 책 인지는 감추면서 한 권에 3백곳 이상이나 틀린 곳이 있는 오역본을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나는 이 지적에 동의한다. 개별용어나 어휘의 오역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말이라도 제대로 연결된 문장이다. 그 문장읽기의 호흡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보면 지난 70년대 후반 이후 집중적으로 증가했던 많은 사회과학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상적 개념서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질에 있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다는 문제를 반추해 보게 된다.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듣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곳에서 말로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에는 우리가 좀 서툰 편이다. 아니 서투르다기보다는 그럭저럭 보내보자는 어중간함과 우의적인 끈을 놓지 못하는 정의(情意)가 큰 편이다. 그러나 어떤 번역에도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풍토가 최근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에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은 그 나름대로 우리 출판계에 현실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외국 저작권의 새로운 확보이다. 그래서 몇몇 인기 있는

지술가들의 전저작물 독점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중엔 놀랍게도 자못 이해하기 힘든 당대의 사상적 석학들도 들어 있다.

하지만 독점적 계약이 곧 최선의 번역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번역을 잘해보려는 사람이 혹 있다 하더라도 번역권을 갖고 있는 출판사 사람과 늘 즐겁게 만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이미 번역을 해놓은 경우에도 보다 잘된 번역본이 이보다 못한 번역본에 밀려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번역권은 따 놓았으나 사정에 의해 번역을 미룰 수도, 안할 수도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결국 정말 잘 번역해서 두고두고 보아야 할 몇권의 중요한 저서들은, 우리 문화 전체를 위해 ‘최선의 번역본 만들기’를 위한 상호조정위원회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아무나 막 해치웠던 번역의 난맥부분은, 힘들지만 비판정신을 새로 키워 다소간 걸러내는 작업을 해보는 게 좋을지 모른다. 사실 앞에 든 문장에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적시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해가능한 부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는 지금도 언론자유가 없는지 모른다. ❖

출판저널

통권 제192호/1996년 5월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허연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김지옥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88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出版社 賣買・仲介”

出版社買入

판권・필름・원고
잔고・재고매입

斗星文化

서울·종로구 송인2동 202-10
(서웅빌딩 207호)
TEL : (02) 232 - 0348~9
FAX : (02) 233 - 0403

「책을 잘 만드는 사람들」

전직 출판사 편집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책 만들기
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소홀해지기 쉬운
교정과 교열은 '목숨을 걸고'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책마다
독특한 표정 만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동아출판서비스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1
현대빌딩 1011호
전화 701-8336 팩스 701-8335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분)
30,000원
* 반년분(11호분)
16,000원